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3 05 제172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천주교마산교구사목국



소공동체 모임 순서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소공동체 모임 시작 전에 매월 둘째 혹은 셋째 주일의 복음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 진행 | : 성호경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 인사 나누기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 진행 |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 진행 |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 진행 | : 길잡이에서()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1] 주님초대하기

[2] 하느님 말씀

- 1) 복음말씀을 읽는다.
-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5] 말씀 살기

- 1) 지난 달 실천사항 나눔
-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6] 마침기도

5. 궁금했어요『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진행 |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 진행 |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 진행 |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 진행 |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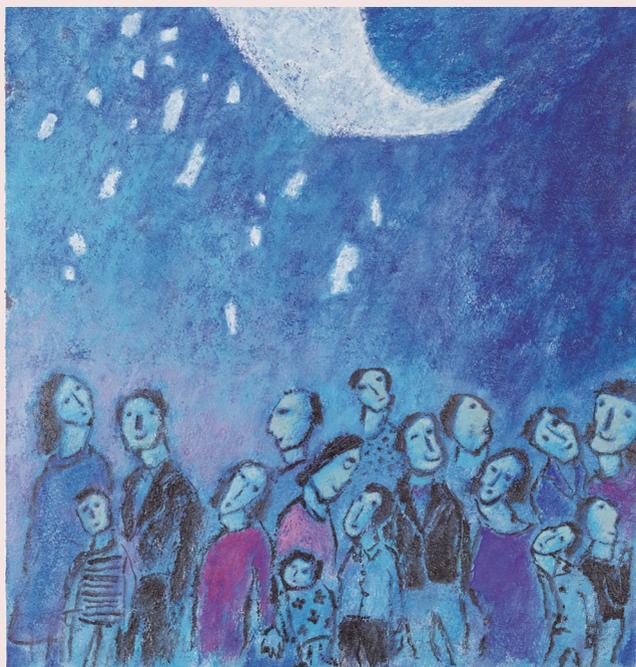
| 진행 |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9. 마침성가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 진행 |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부활 제6주일(5월 14일) 성령을 약속하시다(요한 14,15-21)



진리의 영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요한14,17)

주님께서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간직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현존으로 이끄시어 나날의 삶을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주십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출처: 서울주보, 2014. 5. 25.)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35번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 예수”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16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17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18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19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21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요한 14,15-21)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을 약속해 주십니다. 성령은 그 자체로 하느님이시지만, 또 하느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약한 제자들을 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성령과 함께 라면 안되는 것이 없고 또 못할 일도 없습니다. 성령과 함께 변화되고 싶은 부분을 나누어 봅시다.

†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요한 14,21)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려 노력하는 신앙인들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적을 나누어 봅시다.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라이너 마리아 릴케(Rainer Maria Rilke, 1875-1926)는 독일이 낳은 20세기 최고의 시인입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그는 어렸을 때는 부친을 좇아 군인이 되려고도 했습니다. 병약하고 시인적 기질이 풍부하였던 청년시절 조각가 로댕(Rodin)의 비서로 일하는 동안 예술의 진수(眞髓)를 접하게 됨으로써 대시인으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어느 가을날 자신을 찾아온 이집트 여자친구를 위해 장미꽃을 꺾다가 가시에 찔려 패혈증으로 생애를 마친 릴케는 깊은 종교적인 내적 묵상을 시(詩) 속에 접합시켜 서구시의 정점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날’이란 시는 그런 경향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하였습니다/ 해시계 위에다 당신의 그림자를 엮어놓으십시오/ 들판에다 많은 바람을 풀어놓으십시오/ 마지막 과실에게 결실을 명하십시오/ 열매 위에 이틀만 더 남국의 햇볕을 주시어/ 그들을 완성시키고 마지막 단맛이/ 질

은 포도송이 속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고독한 사람은 계속 고독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잠자지 않고,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쓰고/ 그리하여 낙엽이 뒹구는 가로수 길을/ 불안스레 이리저리 헤매일 것입니다”

고독한 가을날 이틀만 더 남국의 햇볕을 주시어 마지막 과일의 단맛을 완성시켜달라는 릴케의 시적 감수성은 첫마디에서부터 번득이고 있습니다.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다는 이 시의 첫 구절은 바로 성경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빌려온 것입니다.

주님은 때를 기다려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완성과 함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써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때를 기다릴 차례는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노래한 릴케의 시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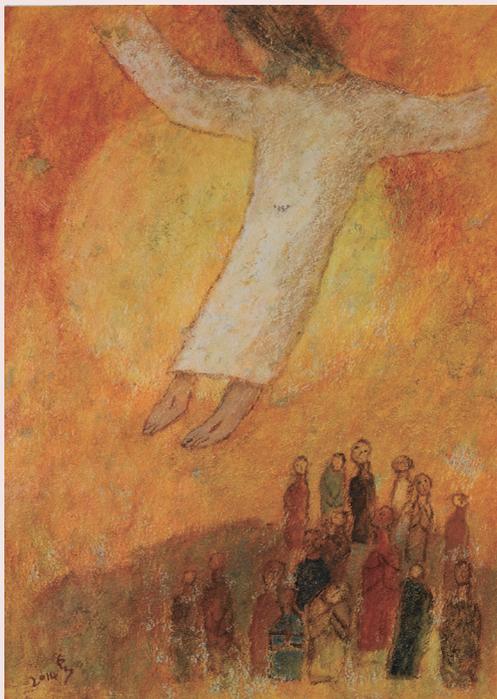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38번 “만왕의 왕”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승천대축일(5월 21일)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부여하시다(마태 28,16-20)



주님이 하늘로 오르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28,19-20)

주님 승천 대축일은 우리에게 큰 희망과 기쁨을 안겨 줍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상으로 오르셨듯이, 우리 모두는 지상에서 순례의 길을 끝마치면 우리의 본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늘 그리워하는 아버지와 아드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출처: 서울주보, 2014. 6. 1.)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37번 “부활하신 주 예수”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마태오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16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17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18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마태 28,17)

우리가 예수님을 뵈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닫혀 있었을 때를 나누어 봅시다.



†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분의 인성이 하느님의 천상영역으로 결정적으로 들어감을 나타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이제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눈에 직접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느낀 적이 있다면 나누어봅시다.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간호원들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나이팅게일(1820-1910)은 크림리아 전쟁 때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많은 군인들을 치료해주었다. 그는 의사들이 포기한 환자조차 죽음의 공포를 덜어주고 새의 의지를 불어넣어 주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어떤 환자든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많은 환자들을 소생시켰다. 그녀는 군인들에게 「등불을 든 여성」으로 존경받았다. 종전 후 영국 국민들은 대대적인 환영식을 준비해놓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름을 바꾸어 몰래 귀국할 정도로 겸손한 여성이었다. 오늘날에도 국제 적십자사에서 「나이팅게일」상을 제정해 세계 각국의 우수한 간호원에게 표창하고 있다. 간호원이 될 때는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있다.

크림리아 전쟁 때의 일화이다. 그녀는 병원의 마루를 닦고 있었다. 담당의사가 “시간 있으면 쉬도록 하세요”라고 하자, 그녀는 “이 손은 하느님이 주신 손입니다. 제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을 대신 하는 것뿐입니다”라고 대답했다는 유명한 이야기이다.

나이팅게일의 봉사활동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한 기자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했다. 나이팅게일은 “오직 하느님의 뜻에 나를 맡

기고 사는 것뿐입니다”라고 짧막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일생 언제 어느 때나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며,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 신앙인의 전형이다.

실제로 신앙이란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다. 신앙인의 가장 큰 은총은 하느님과 함께 살며, 그분의 보호하심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팅게일은 참다운 신앙인이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41번 “죽음을 이긴”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품 안을 그리워하는 소공동체

금산성당 5구역장 조은숙(베로니카)

마산교구 진주지구 2지역 금산성당은 하대동성당이 모본당으로 2008년 12월 29일 설립되었고, 금산성당 봉헌식은 2009년 2월 21일 전 마산교구장 안명옥 주교님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신자 수는 약 1,400명, 576세대, 구역은 7개의 구역, 소공동체는 21개입니다. 1구역은 옛날 가방공소를 중심으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으며 전원주택을 가진 신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7구역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사는 5구역을 소개합니다. 5구역은 푸르지오 아파트이며 1반, 2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5구역은 소공동체 모임, 본당 청소, 주일 전례 담당, 구역별 음식 나누기, 본당 행사에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구역입니다. 소공동체 모임을 1, 2반 따로 하였으나 참여하는 인원수가 차츰 줄어들어 다 같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임 장소를 가정집에서 시작하였는데, 1가구씩 순서를 정해 많이 모이는 저녁 8시에 모여서 복음 나누기를 하고, 모임을 마치면 맛있는 다과를 나누면서 본당 소식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의지하고 가족처럼 보듬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변하듯 소공동체 모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여 가정에서 모임을 진행하기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후 모임은 성당 주회실을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달 첫째 주일을 정해서 미사참례를 하고 주회실에 모여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길잡이 자료를 활용하여 복음 나누기를 합니다. 모임을 마치게 되면 본당 청소를 합동으로 하게 됩니다. 이날은

본당 대청소가 있는 날이라 5구역 신자들도 다 같이 청소합니다. 청소가 끝나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가까운 식당으로 향합니다. 주일미사참례와 소공동체 모임, 그리고 본당 대청소를 하루에 다 마치게 되니 흐뭇하고 대견스럽게 느낍니다. 소공동체를 가정에서 하는 것보다 성당에서 하게 되니 참여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금산성당이 생길 때부터 본당 신자들의 단합과 신자들의 얼굴 익히기를 목적으로 음식 나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한달 한번 마지막 주일에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전 신자에게 점심을 제공합니다. 저의 5구역 차례가 되면 본당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보다 재료를 더 얹어서 고급스러운 메뉴를 정합니다. 솜씨 있는 자매들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한 상을 차려서 신자들에게 나누어 드리면 우리 구역이 제일 맛있고 풍성하다고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미사참례를 꺼리는 신자들이 많았지만, 전례를 담당하는 날에는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참여합니다. 본당의 날에는 구역별로 음식을 가져와서 소풍 나온 기분으로 다 같이 나누어 먹고, 게임을 할 때는 목청 높여 응원하는 단합 잘 되는 구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장례가 났을 때는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가족같이 힘써 주며, 위로와 연도를 여러 차례 바칩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를 지내다 보니 옛날처럼 함께하는 소공동체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모이는 것도 힘들고, 함께 하는 것도 꺼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웃음꽃이 피는 세상은 언제 오게 될까요?

살기 좋은 5구역. 웃음이 넘치는 5구역. 하느님을 먼저 찾는 5구역이 하루 빨리 되길 기도드립니다.



「성사 거행에서 언어와 행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사 거행 중에 언어와 행위는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 실제로 상징적인 행위 자체가 이미 언어인 것은 분명하지만, 예식의 언어는 이 행위들에 따라 나와야 하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한다. 표징과 가르침이라는 점에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전례적인 말씀과 행위는 그것들이 가리키는 바를 실현한다는 면에서도 분리될 수 없다.

해설

성사 거행은 언어와 행위로 이루어진다. 특히 언어는 하느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사 곧 성체성사뿐 아니라 다른 모든 성사에서 말씀전례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리고 거기에 알맞은 행위가 뒤따른다.

용어

언어(말)와 행위

상징 행위 자체가 언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행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세계예식에서 아무 말 없이 물만 붓는다면 뜻이 전달되기 어렵다. 물로 이마를 씻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해야 세례성사의 뜻이 분명해진다.

「전례 거행에서 사용하는 노래와 음악의 합당한 기준은 무엇인가?」

노래와 음악은 전례 행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다음 기준을 존중해야 한다. 가사는 가톨릭 교리에 부합해야 하며, 주로 성경과 전례의 샘에서 길어 올려야 한다. 기도가 아름답게 표현되어야 하며, 주로 성경과 전례의 샘에서 길어 올려야 한다. 기도가 아름답게 표현되어야 하며, 음악이 품위 있어야 하고, 신자 회중이 동참하는 가운데 하느님 백성의 풍부한 문화로 표현되어 성스럽고 장엄해야 한다. “성가는 두 배의 기도입니다”

해설

음악이나 성화상은 정서적인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감정 또는 정서가 전례에 매우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만 그것이 전례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드높여 하느님께 올리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용어

성경과 전례의 샘에서

성가의 가사는 성경 말씀이나 전례문에서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다. 가톨릭성가집에는 성경 말씀 특히 시편에서 뽑은 가사들이 많다(7, 13, 50, 58, 421, 477번 등).

*한님성서연구소에서 출판한 (말씀으로 익히는 가톨릭 교회 교리 문답)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